

2018.11.26
MON

서울시 음악관현악단 기념공연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

오후 8시
국가대극원
콘서트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기념공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올해로 서울과 베이징이 자매도시로 우정을 쌓은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25년 간 양 도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도(首都)일 뿐 아니라 사람이 오가고, 문화가 오가며 마음으로도 가장 가까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가 끝없이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지는 국가대극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진성수 지휘자와 단원이 선사하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색으로 들려드리는 중국 대표노래와 한중 전통악기의 협연이 여러분께 진한 여운으로 남을 것입니다.

늦가을 밤의 정취를 가득 느낄 수 있는 베이징에서 소중한 인연과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하모니에 참석과 박수로써 선물을 더해주시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두 도시의 우호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되길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서울특별시장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영화 '침밀밀' O.S.T. 中 <침밀밀>

<월량대표아적심>

중국 가곡 <모리화>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중국 가수 주현

해금과 일후를 위한 협주곡 <추상>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해금 서은영 / 중국 일후 우해음

국악관현악곡 <축제>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국악관현악곡 <일씨구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모듬북 협주곡 <打>

서울시국악관현악단 / 모듬북 정주리

1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

작곡 최성환 편곡 이인원
아리랑은 그 풍부하고 민족적인 선율로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노래로 알려져 있다. 이 곡은 민요 아리랑 주선율을 주제로 하지만 다양하게 변형시킨 구성이 두드러진 환상곡풍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최성환에 의해 1976년 관현악곡으로 작곡되었다.

2 영화 '침밀밀' O.S.T. 中 <침밀밀> <월랑대표아적심> 중국 가곡 <모리화>

편곡 박한규 노래 주현
중국에서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또 여전히 명작으로 불리는 영화<침밀밀>의 OST와, 중국의 아리랑으로 불리는 <모리화>를 국악기로 편곡하여 연주한다.
국악기의 소리로 중국의 친숙한 노래들을 들어볼 수 있다.



3 해금과 얼후를 위한 협주곡 <추상>

작곡 이경섭 협연 서은영 얼후 우해음
해금과 얼후를 위한 협주곡 <추상>은 작곡가가 어릴 적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놀았던 추억을 서정적이고 경쾌하게 표현했다. 다분히 격정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해금과 얼후의 서정적이고 애잔한 선율을 중심으로 타악의 박진감 넘치는 반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4 국악관현악곡 <축제>

작곡 이준호 편곡 박경훈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놀이형식으로 갖추어진 축제가 많이 있다. 아주 작은 마을에서도 사계절 절기 절기마다 이루어지고 생활 곳곳에 스며있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다양한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케 한다. 이 작품은 마을 축제의 분위기를 새롭게 다른 시각에서 관현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6 모듬북 협주곡 <打>

작곡 이준호 편곡 박경훈 협연 정주리
모듬북 협주곡 타(打)는 모듬북과 관현악의 협연을 위해 만들어진 곡으로,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진다. 이 곡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듬은 우리 전통 장단인 휘모리 장단과 엇모리 장단에 비트가 강한 4박자의 대중적인 리듬이 혼합되어 있다. 모듬북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가락과 힘 있는 소리가 가장 큰 특징이다.

5 국악관현악곡 <얼씨구야>

작곡 김백찬
'얼씨구야'는 2009년부터 서울 지하철 환승역 안내방송에 배경음악으로 쓰인 음악이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 서울 메트로(1~4호선)에서만 쓰이다가 점차 확산되어 현재는 서울시 노선에 해당하는 모든 지하철 회사들이 사용하는 음악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음악이 되었다. 실제 원곡은 30초 분량의 짧은 음악이고, 실제 안내방송에 쓰이는 부분은 앞에 5초 정도이지만, 지하철 배경음악으로 국악을 사용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
이러한 생활음악적 요소로서의 국악곡인 '얼씨구야' 취지를 살리고자 곡의 주 멜로디를 주제삼아 확장시켜, 서울시 문화를 상징하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위해 국악관현악 편성의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보았다.
곡의 주제는 얼씨구야의 주 멜로디를 살리되, 역동적이고 활기찬 서울시민들의 모습을 담아보려 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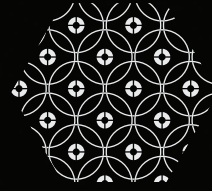
한국의 혼이 담긴 선율의 현대적인 어울림,
창작 국악관현악의 역사를 잇고 미래를 이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1965년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그동안 아시아·미주·유럽 등지의 수많은 해외
공연과 300여 회의 정기공연, 그리고 2,000여
회의 특별공연을 통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객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인류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하여
한국전통예술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현대인과 공감하며 타 장르의
문화예술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호흡하는 열린 예술단으로서의 모색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진 아시아 문화역사의
중심 도시, 아름다운 전통예술과
창작 국악관현악으로 어제와 오늘을 잇고
내일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서울시 예술단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지휘자 진성수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M.M) 졸업 (conducting)
국립오페라단, 성남시립국악단, 안산시립국악단, 국립국악원
국립창극단, 울산시립무용단, 인천시립무용단 등 객원지휘
現,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악장 겸 지휘자
現, 국악팝스오케스트라 '여민' 지휘자
現, 전북도립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협연자 가수 주현



- 중국 골든레코드 상
- 제2회 중국 국제
보컬 공모전 금상
- 국가 일류 배우이자
소프라노

협연자 해금 서은영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박사 수료
-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협연자 얼후 우해음



- 베이징 민족음악단
청년호금연주가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연주

협연자 모듬북 정주리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고법
전수장학생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원

사회자 손범수



- 전 KBS 공영방송
아나운서
- 방송/행사/공연
전문 사회자

사회자 우창



- 북경오페라 무용극
극장 독창 연기자
- 방송/행사/공연
전문 사회자

중국 측 출연진 섭외에 협조 해 주신 베이징 시 관계자분들과
공연장 사용에 도움을 주신 국가대극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 및 스태프

악장 진성수(지휘) 류지연(가야금)

가야금 광재영(수석) 이주은(부수석) 이지연 최인영 홍세린

거문고 김선호(수석) 한나리(부수석) 김영임 김일호

대금 이나래(수석) 변제남 김진성 김혜연 강정아 김희정

소금 권용미(부수석)

해금 서은영(수석) 김현희(부수석) 이경주 김민숙 김애라 용은정

피리 성시영(수석) 김현주(부수석) 민성치 박경미 권혜림 김지현 전소영

아쟁 김상훈(수석) 이재룡 김소형 김민정

타악 최종희(부수석) 남동현 허일두

총무 이주형

악기 한연호

객원 박한규(신디사이저) 김평석(타악)

협연 정주리(모듬북)

사회 손범수

기술스태프 김동현(무대감독) 홍대녕(음향감독) 김규일(조명감독) 이화(분장·의상)

행정스태프 (재)세종문화회관 예술단지원팀 이영희 최병훈

首尔市国乐管弦乐团 团员及工作人员名单

团长 陈圣秀(指挥) 柳芝艳(伽倻琴)

伽倻琴 郭才英(首席) 李周恩(副首席) 李智妍 崔仁英 洪世琳

玄琴 金善孝(首席) 韩娜丽(副首席) 金英林 金日浩

大琴 李娜莱(首席) 边制南 金尘星 金慧妍 姜贞雅 金希正

小琴 权容美(副首席)

奚琴 徐银英(首席) 金贤熙(副首席) 李京周 金敏淑 金艾拉 龍银正

笛子 成时颖(首席) 金玄珠(副首席) 闵成治 朴京美 权慧琳 金芝玄 全小英

牙箏 金尚勋(首席) 李在龙 金小形 金敏贞

打击乐 崔宗熙(副首席) 南东轩 许日杜

总务 李周兄

乐器 韩延浩

客席 合成器 朴韩奎, 打击乐 金平硕

协奏 拼鼓 郑朱莉

主持人 孙凡秀

技术人员 舞台总监 金东贤, 音响总监 洪大宁, 灯光总监 金奎日, 化妆·服装 李华

行政工作人员 (财)世宗文化会馆 艺术团支援组 李英熙 崔炳勋

首尔市国乐管弦乐团

蕴含韩国之魂的旋律与现代的交融,继承国乐管弦乐的创作历史,引领未来!

首尔市国乐管弦乐团创立于1965年,以实现国乐的现代化、大众化、世界化为目标,是韩国最初的国乐管弦乐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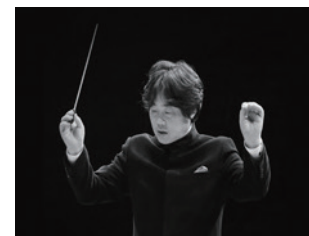
做为代表首尔市的国乐管弦乐团,我团这些年来在亚洲、美洲、欧洲、等地进行了诸多海外演出和300多回的定期演出,以及2000多回的特别演出。受到了首尔市民乃至国内外观众的关心和喜爱。

通过建设性的继承人类文化遗产,与世界共享韩国传统艺术的珍贵精神,与现代观众同感,与其他类型的文化艺术交换灵感,致力于摸索并成为随时随地与观众同呼吸的艺术团。

在传统文化和现代相交融的亚洲文化历史中心城市-首尔,做为首尔市艺术团,我们通过美丽的传统艺术和创意性国乐管弦乐来连接过去与现在、创造明日的传统、打开历史新篇章。



指挥 陈圣秀



中央大学-音乐大学毕业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M.M)
毕业 (conducting)
国立歌剧团、城南市立国乐团、安山市立国乐团、国立国乐团、国立唱剧团、蔚山市立舞蹈团、仁川市立舞蹈团等处的客席指挥。
现任首尔市国乐管弦乐团团长兼指挥家
现任国乐大众管弦乐'与民'指挥家
现任全罗北道儿童国乐管弦乐团指挥家

协奏家 歌手 周旋



- 曾荣获中国金唱片奖
- 第二届国际华人声乐比赛金奖等众多国内外大奖。
- 国家一级演员 著名青年女高音歌唱家

协奏家 奚琴 徐银英



- 汉阳大学音乐大学博士结业
- 首尔市国乐管弦乐团奚琴首席

协奏家 二胡 于海音



- 北京民族乐团青年胡琴演奏家
- 2008年北京奥运会闭幕式演奏

协奏家 拼鼓 郑朱莉



- 首尔市无形文化遗产第25号板索里鼓法传授奖学金学生
- 首尔市青少年国乐团团员

主持人 孙凡秀



- 前任KBS国立电视台播音员,
- 电视节目、各种活动、及演出活动的专业主持人。

主持人 武装



- 北京歌剧舞蹈剧剧院的独唱演艺者,
- 电视节目、各种活动、及演出活动的专业主持人。

非常感谢帮助邀请中国演艺家的北京市相关领导。
也非常感谢帮助并提供演出场地的国家大剧院相关领导。

1 韩国国乐管弦乐 《阿里郎幻想曲》

作曲 崔星焕 编曲 李仁源
阿里郎是一首非常丰富的曲子,是代表韩国民族的旋律,把民族情感表现的淋漓尽致。此曲以民谣阿里郎的主旋律为主题,且添加了多种变奏。幻想曲风的此作品是代表北韩的作曲家崔星焕在1976年创作的管弦乐曲。

2 电影《甜蜜蜜》中的插曲 《甜蜜蜜》 《月亮代表我的心》 中国民歌《茉莉花》

编曲 朴韩奎 歌手 周旋
在中国非常受大众喜爱的电影著作《甜蜜蜜》的插曲,以及称为中国阿里郎的《茉莉花》,把这几首著名的中国歌曲用韩国国乐进行了编曲。
可以欣赏到用韩国国乐的声音演奏的中国名曲。

4 韩国国乐管弦乐曲 《庆典》

作曲 李俊浩 编曲 朴京勋
韩国有很多从古代传承下来的游乐形式的庆典。即使是很小的村落,每个季节和每个节气都会举行游乐庆典。这种渗透在平民生活中的游乐习俗也正反映出了韩国民族丰富多彩的娱乐文化。此作品在不同的角度用管弦乐重新演绎了村落庆典氛围。

5 韩国国乐管弦乐曲 《哎嗨哟》

作曲 金百灿
《哎嗨哟》曾在2009年用于首尔地铁换乘站广播的背景音乐。刚开始只用在首尔地铁(1~4号线),逐渐在首尔地铁的所有线路上使用此曲来做广播背景音乐。如今,对乘坐地铁的首尔市民来说是非常熟悉而亲近的音乐。原曲为30秒长的较短曲子,实际在广播中也只用到曲子的前5秒。不过,首次在地铁音乐中使用国乐有着重要的意义。而且,在市民中此曲子反应良好,一直深受人们的喜爱。
把《哎嗨哟》的这种生活音乐要素做为基础,而且以曲子的旋律为主题并扩展起来,把曲子编制成了国乐管弦乐作品。此曲的主题既保留了《哎嗨哟》的主旋律,又表现了活力动感的首尔市民面貌。

6 拼鼓协奏曲 《打》

作曲 李俊浩 编曲 朴京勋 协奏 郑朱莉
拼鼓协奏曲《打》是一首为拼鼓和管弦乐的协奏创作的曲子。打击乐强烈的节奏感和管弦乐的细致旋律相互交融是此曲的特点。此曲使用了韩国传统节拍--二拍快板和二三拍混杂的快十拍节奏,且融合了节奏感强的较为大众的四拍子节拍。拼鼓的华丽而动感的曲调和力量十足的声音是此曲最突出的特点。

3 奚琴· 二胡协奏曲 《秋想》

作曲 李京燮 协奏 徐银英 二胡 于海音
奚琴·二胡协奏曲《秋想》是作曲家把童年时在大自然悠闲玩耍的记忆用音乐表现出来的作品。其风格既抒情又轻快,且激情多变。奚琴和二胡的哀伤且诗意的旋律为主轴,又融合了打击乐的节奏感。



首尔市 国乐管弦乐团 纪念演出

大家好！

我是首尔市市长朴元淳

今年是首尔市与北京市缔结国际友好城市二十五周年。在二十五年间，两市不仅是地理最近的首都，而且已经建立了人文交往，民心相通的城市关系。

出于一个对两市友谊万古长青的心愿，真诚邀请大家到位于北京的国家大剧院享受首尔市国乐管弦乐团精彩的演出。

在本届演出，首尔市国乐管弦乐团指挥陈圣秀先生和团员为大家精心准备了韩国传统音乐和现代音乐交

相辉映的表演。尤其是，本团以韩国独特的音色演唱中国歌曲，韩中两国传统乐器一起合奏，将给大家留下深刻印象。

今晚在充满晚秋情调的北京，为了增进友谊，共面向未来，两市响起和谐之声。非常感谢大家为今天的“和声”积极参与活动并给予热烈掌声。

衷心祝愿两市以本届活动为契机，今后也不断迈出增进友谊和共同繁荣的未来脚步。



2018年 11月

首尔特别市市长
朴元淳

韩国国乐管弦乐《阿里郎幻想曲》

首尔市国乐管弦乐团

电影《甜蜜蜜》中的插曲《甜蜜蜜》
电影《甜蜜蜜》中的插曲《月亮代表我的心》

中国民歌《茉莉花》

首尔市国乐管弦乐团 / 中 歌手 周旋

奚琴·二胡协奏曲《秋想》

首尔市国乐管弦乐团 / 奚琴 徐银英 / 中 二胡 于海音

韩国国乐管弦乐曲《庆典》

首尔市国乐管弦乐团

韩国国乐管弦乐曲《哎嗨呦》

首尔市国乐管弦乐团

拼鼓协奏曲《打》

首尔市国乐管弦乐团 / 鼓 郑朱莉

2018.11.26
MON

首尔市 国乐管弦乐团 纪念演出

北京-首尔
缔结友城 25周年

晚8点
国家大剧院
音乐厅